

강원도 속초시 해녀 <노 짓는 노래>와 생애력 조사

이성훈

기존의 제주도 민요자료집에 수록된, 제주 출신 해녀의 <노 짓는 노래>¹⁾는 제주도 연안에서만 물질했거나 본토 해녀 작업 出稼 경험이 있는 제주도 거주 해녀 제보자에만 한정시켜 수집돼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2001년 12월 20일~21일·2002년 8월 18일에 경상남도 통영시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제주도 출신 해녀인 현종순이 구연한 <노 짓는 노래>를 채록하여 발표한 바 있다.²⁾

기존의 제주도 민요자료집에 수록된 자료의 형태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설만을 수록한 경우.³⁾ 둘째, 사설과 표준악보를 수록한 경

1) 선학들의 논문이나 자료집에서는 해녀들이 뱃물질 나갈 때 櫓 저으며 부르는 노래를 <海女謠>·<海女노래> 등 여러 가지 분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필자는 「통영지역 해녀의 <노 짓는 노래> 고찰」(『崇實語文』제18집, 숭실어문학회, 2002)에서 <노 짓는 노래>라는 명칭으로 통일하여 사용할 필요성을 살핀 바 있다.

2) 이성훈, 「경남 통영시 해녀 <노 짓는 노래> 조사」, 『한국민요학』제11집, 한국민요학회, 2002, 235~265쪽.

3) 金永三, 『濟州島民謠集』, 中央文化社, 1958.; 秦聖麒, 『濟州島民謠』제1집(희망프린트사, 1958.)·제2집(중앙미술사프린트부, 1958.)·제3집(성문프린트사, 1958.); 金榮敦, 『濟州의 民謠』, 濟州道 文化藝術擔當官室, 1992.[金榮敦, 『濟州의 民謠』, 新亞文化社(民俗苑), 1993.]; 제주대 국문과·국어교육과의 『학술조사보고서』제5~8집, 1976~1984.; 제주대 국어교육과·백록어문학회의 『백록어문』창간호~제16집, 1986~2000.

우.4) 세째, 사설과 제보자의 간략한 생애력을 수록한 경우.5) 넷째, 제보자 별로 채보한 악보를 수록한 경우) 등이다. 이처럼 기존 자료집은 사설의 채록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진 반면에 제보자의 생애와 구연 현장에 대한 관심은 덜했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기존 자료집에 수록된 사설이나 표준 악보만으로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떠한 가락으로 불리워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해녀 <노 짓는 노래>의 사설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민요를 언제 · 어디서 · 누구에게 배웠으며, 물질 작업을 하면서 무엇을 채취했고, 수익은 어느 정도였나, 出稼地에서의 생활은 어떠했는가 등의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 민속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녀 <노 짓는 노래>의 자료는 사설뿐만 아니라 제보자의 생애력과 채보한 악보까지 결들여져야만 충실한 자료집이 될 것이다.

본 조사 자료는 필자가 2001년 12월 23일에 강원도 속초시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제주도 출신 해녀인 이기순(李基順, 女, 1924. 4. 11 출생, 현주소-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연금정아파트 101동 203호, 고향-제주도 조천읍 북촌리)이 구연한 해녀 <노 짓는 노래>와 생애력이다.

본 자료를 정리함에 있어 적용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사설과 생애력의 표기는 제주방언연구회의 '제주어 표기법'(제주도, 『제주어사전』(제주: 1995, 605~616쪽)을 기준으로 했고, 말의 뜻이 어

4)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65.

秦聖麒, 『南國의 民謠』, 正晉社, 1979.

5) 玄容駿 · 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 9-1 · 2 · 3』(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 1981 · 1983.);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제9~14집(제주: 제주대 국문과, 1989 · 1990 · 1992 · 1994 · 1995 · 1997.)

6) 藝術研究室, 『韓國의 民俗音樂 : 濟州道民謠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긋난 경우라도 제보자가 구연한 그대로 수록했다.

2. 사실과 생애력은 구연 현장을 증시하여 제보자가 구연한 순서대로 수록했으며, 의미 단락이 중복되는 사실이 있어도 제외시키지 않고 모두 수록했다.
3. 생애력과 민요는 현장성과 방언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 구연한 대로 침삭없이 실었다.
4. 제보자는 (제), 조사자는 (조)로 표기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노 젓는 노래>의 의미단락 앞에만 편의상 자료번호를 붙였다.

【제보자의 생애력과 사실】

(조): 옛날에 육지서 물질허멍 노 저어 본 거허고 살아온 얘기 좀 해줍써.

(제): 재작년에. 아, 옛날에 여기 와서 해녀회장 해난. 시청에 수산과에 가면 알지. 그래서 오랏더라고. “해녀 세 분만 얻어달라.”고. “흐루 제주도 그걸 거 하겠다.”고. 그래서 “세 분 얻어 달라.” 해서. “아이고, 요새 해녀 얻을라든 막 비싼디.” 그런디 “비싸도 얻어 달라고.” 해서, 세 분을 나까지 서어서 바다에 가서 그 해녀노래 해서 하루 십만원씩 해가고 흐루 또 그 해녀노래 오라서 녹음해 가고. 또 그해 강능대학교에서 학생덜 여저아오덜 다섯이 왔더라고. 다섯이 와서 “할머니 저 해녀노래 좀 해달라고.” 그래가꼬 집의 와서 녹음했는다. 가이덜은 멀 안 가전 왔덴 세수 비누 가전 오고렌 석 장 쥘 가고. 하루는 또 남저기 혼 분이 또 오라서.

(조): 나이가 어느 정도 뒀신디.

(제): 젊은 사름⁸⁾이라. 오라가꼬. 작년 말고 재작년에. 그래 혼 분이 와가

7) 남자.

또 “수산과에 오니까 할머니 이름을 대주어서 왔다.”고, 우리집을 찾아 왔더라고. 그래서 집의서 녹음 좀 해달래서, 그 해너노래 좀 녹음을 해 줬더라는. 하루는 우리 손녀 딸이 그 때 집의 온 땀다. 서울서 와서. “할머니, 저 시청 수산과로 주민등록 가지고 돈 타래 오렌.” 그래서. ‘이거 무신 돈을 타래 오라.’ 했는고. “느 혼번 가보라. 할머니 주민등록 가지고 가보라.” 갖더라는 돈 이만 오천원 보냈더라고. “집의 와서 녹음해 간 거.”라고 그렇게 해서 할머니 보네더라고. 그래서, 그 때도 남 저분덜이 와서 “꼭 제주 사름만 빌어 달라.”고. 여기도 여기 해너들도 잇지.

(조): 예.

(제): 그래서 세 분을 소섬 사름 하나허고 또 저 한림 여저 하나허고 나허고 서이가 저 방파제, 저기 가서 물 쏘곶에⁹⁾ 가서 뭐 따는 거허고, 그렇게 녹음해 가더라고 거기서. 그래서 하고서는 작년부터 난 몸 아프니 뭐 사름 찾아오는 거. 무례질¹⁰⁾ 안다니니까. 그냥 집이만 이시니까. 찾아오는 줄도 몰르고 저기 가든 해너덜 옷벗는 집 잇지. 경헌디 이젠 혼 다숫 명이 잇고 저 부월리¹¹⁾엔 헌디. 배로 즐 땡경 가는 디 잇어. 아바이 므을¹²⁾이라고 거기, 저기 올라가문 해너덜 경 따루따루 살아서

8) 사람.

9) 속[裏]에

10) 물질. 해너가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

11) 江原道 東草市 朝陽洞 扶月里. “주교(舟橋)는 옛날의 부월리(扶月里)를 주교리라 불렀지요. 배다리 동네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는 논산조양(論山朝陽),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강원: 속초문화원, 1992), 105쪽). “주교는 부월리 앞에 있는 뜰인 반부득[반부평, 半扶坪] 옆에 있는 마을로 오늘날의 청호동(靑湖洞)이다. 동쪽은 동해 바다요 서쪽은 청초 호수, 그 북편으로 다리 모양의 육지가 뻗어서 도선장(갯배)에 이어졌기에 부두와 같다 하여 청호동을 배가 닿는 부두, 반부득 또는 배다리라고 했다. 해방 전까지 배로 건너다녔다.”(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편, 『속초의 옛 땅이름』(강원: 속초문화원, 2002), 129쪽.)

12)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청호동에는 함경도(咸鏡道)에서 내려 온 피난민들이 많

찾을라든 힘들어. 그러디 거기선 녹음해간 말도 안하고 작년부턴 윈 해녀 찾아보는 사름도 엇고. 해녀신디 가고 그런 말 헐 사름도 엇고. 나 재작년에 그래서 또 그전의 여기 어촌계서 설악제라고 시월 초 사 은날 일년에 한 번씩 헐 때, 또 해녀덜 무대에도 올려 놔. 그래도 저번 에 해녀덜은 막 여러 므을서 한림 댤 저 어디, 저어 대정 저런 디서 오라서 뜰루뜰루 사니까, 해녀 관렘을 잘 안하고. 여기온 지 나 오건디 헐 스십 년이 되어서. 스십 년이 더 되었구나.

(조): 여기 온 지 경¹³⁾ 오래 뒤어신가 마썸. 멧 년도 오라신디 마썸.

(제): 멧 년돈지 모르고 몰라. 우리 애기 마은 세 설에 본 게 마은 으릅 설이여. 그해 오라서 여기 오니까 해녀가 혼 요 관렘로 해녀질허는 사 름덜이 혼 스십 명 뒤더라고.

(조): 여기가 무신 동네파?

(제): 저, 영금정.

(조): 영금정. 아파트 이름이 무신 아파트파?

(제): 영금정 아파트. 영 102동 203호.

(조): 할머니 이름이 이자 기자 순자. 멧 년도에 태어나수파. 올해 연세가?

(제): 칠십으릅. 여기 내가 올 적의는 혼 십 리라도 집 혼나 이시나 마나 헐다고 그랫는데, 내가 오니까 집을 침 돈저 아까 들린 집 앞에다가 집을 그뻐 우리집이 새집이라. 그래서 그 때 십스만 원 쥬네, 집을 혼 채 사서 살았는디. 이거 옛날은 다 바닷물이거든. 파도에 그만 집을 새 집이니까 살림¹⁴⁾을 이래 좀 꺼내도 뒤는디. 우리집 영감님이 살아실

이 거주하는 까닭으로, 함경도 사투리 ‘아바이’를 사용하여 ‘아바이 마을’이라고도 한다.(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편, 『속초(속초(東草)의 옛 땅이름』(강원: 속초문화원, 2002), 128쪽.)

13) 그렇계.

14) 살림. 세간[家具].

적에 새집이니까 집안에 물 들어간다고 문을 툇 닫아가. 돌 2톤 거 누리떠부니까. 파도가 들어와서 위로 콧 주저안쳐부니까. 그 때는 뒤 보상을 받을 게 이서 뒤 잇어. 그러니까 우리 애기 중학교 일학년 땐 가 그 집을 그렇게 떠나볼고. 인제 거 옛날에 또 육만 오천 원을 줘서 ㅎ쫘¹⁵⁾ 올라간 디 초가집을 사서, 또 기와집을 만들어가꼬, 기와 없이고 방 ㅎ 칸 늘롭고¹⁶⁾, 물에 텡길라니¹⁷⁾ 창고 짓고, 이래서 살았는데, 또 그 집이 너무 작고 작을 꺼 2타서 질바우에¹⁸⁾ 큰집을 또 삼십육만 원을 줘서 ㅎ나 사서, 스십 평짜리 사서 들어오니까. 그 집이 도시 계획에 딱 들어가부는 거라. 그러니까 아파트 ㅎ나씩 지어 준 거라, 이거 도시 계획에 들어 가서. 그래가꼬 이레 와 살았는데. 오전던 오래곡, 뒤 그러는디 그러저럭 허다보니 해녀가 십 명되엇다가, 십오 명으로 되엇다가, 십 명으로 줄어 가더마는 이젠 ㅎ 다숫이 잇는지, 이 관래는 다숫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 그 집의 각시도 해녀질허당 훗집해서 안하고. 나도 이젠 나이 많으니까 작년까지는 텡기다가¹⁹⁾ 또 어촌계에 들어가꼬. 그 때 시절에 뒤 어촌계도 몰르고, 뒤 해녀라꼬 ㅎ른 뒤 여기 오니까, 뒤 거지 밥 얻어 먹으러 텡기는 거나 취급허더마는 이젠 몇 년도인지 모르지. 해녀 어촌계에 싸악 들어놓고, 어촌계로 허니까 해녀를 좀 크게 생각허더라고. 아, 이거 해녀 제주도 해녀가 높은 사람 이구나. 그 다음에 또 저번 때 이디 해녀 오라도 그 말허곡. 한 번은 물에 들어신디, 할머니 빨리 나오라꼬 하니까. 나오니까, 해녀들 요기 앉아서 물건을 풀아. 요기 회 파는 앞에다가 조개도 파다 놓고, ㅎ²⁰⁾도

15) 조금.

16) 늘리고 넓히고.

17) 다닐려니.

18) 길가에.

19) 다니다가.

20) 흥합. 강원도 영동지역에서는 흥합을 ‘섞’이라고 한다.

해다 놓고, 뭐 벨 거 다 해다 파는 다, 거길 못 앉게 해서, 해녀를 다 물레레 해녀 물건을 다 물에 들어칠라고, 들이쳐 부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 개새끼야, 제주도선 해녀 양성시길라고 애를 씌는디, 느그들은 왜 해녀를 덜 보느냐.” 하니, 그놈이 나신데레 허는 말이 “이 개가 뜯 년아 제주도 살지 왜 오랏느냐.” 해서, 내가 그 놈 허릿덜 꼭 거머쥐고, 물레레 들어갈라고 허니까. 우리 이웃엿 아가 “할머니, 할머니 참아, 할머니 참아.” 해서 그란해도 그래가꼬 막 웃어서, 짐녕 사름은 젊은 사름이고, 난 호살 늙은 사름인디 나신디렌 그놈이 와서 커피 혼 잔 사 주고 “잘못했습니다.” 사팔 허는디. “짐녕 여자한테 욕을 너무 들어서 안 헌텐, 사과를 안하겠다.” 해서 이젠도 봐지면 인사를 허고 땡기긴 땡기는다. 그 때꺼지만 해도 그렇게 해널 나쁘게 생각허더라고. 그랜는 디.

(조): 그 때가 몇 년도쯤 되어신디 마썸.

(제): 혼 오륙 년 되엇지.

(조): 할머니 고향이 어딘고, 제주도?

(제): 북촌, 조천면 북촌. 응.

(조): 몇 살에 여기 와수파?

(제): 내가 침 먼저²¹⁾ 올 때는 저 부산으로 왔는디 스물일곱에 나왔는데.

(조): 물질은 제주도서 배우고?

(제): 제주도서 물질이야, 우리 마을에는 뭐 전부 연날이사 무신 혼 집에 물질 뭐 너다섯 썩은 다 메뉴리고 딸이고 손지고 다헐 때니까. 뭐 계속 잘 허긴 잘했지. 그 시국 일어나 갖고 스삼 사건에 몬 그러고, 어떠 하다 본께는 뭐 신랑도 죽고, 뭐 애기도 아홉 설 먹은 거 차로 굴런 죽였어, 북촌 호교 앞이서. 차로 굴런 죽여두고는 그만 미쳤지. 아홉

21) 먼저[先].

설 맥여가 차로 굴러, 나 스무 설에 난 거 차로 굴러 죽이니까, 뒤 반 미쳐가고 신랑도 죽어 불고, 아홉 설 맥여서 차로 그거 굴러 죽여 불고 허니까, 미쳐서. 그런디 스물일곱 설에 저 부산 나온 거라. 그 때 시절엔 이렇게 살아질 생각은 안 허고. 어디 가다가 객선에라도 타며는 물에 빠져 죽을 거. 경허고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뭐 이렇게 허든 몰라도, 해나 북촌이엔 헌 마을에 가지민, 이제 우리 남동생 덜도 우리 어머니 난 동생은 아니라도 남동생도 살고, 우리 조카도 제주시에서 OO 안경이라고 크게 하다가 망해가고, 이제는 거지가 됐지 마는 우리 마을에선 이걸로 크니까. 아버지가 부장을 열일곱 설부터 부장을 달아서 사십 년을 살았다그래, 우리 크니까. 사십 년을 살아가꼬, 양반의 집 딸로 집뻐기뻐²²⁾ 못 나가게 해서, 무례질²³⁾은 배와도. 어디 뭐 만약에 북촌²⁴⁾뜨른 함덕이엔 헌디도 구경을 못허고, 외막이엔 헌디도 구경을 못 허고, 북촌만 살다가 애긴 딱허게 차로 굴러 죽이고 나니까, 미쳐서 제주도는 다돌아뎡겨서 내가. 어디 저 남원으로 어덜로 미쳐서 돌아뎡기다가, 예고, 이젠 제주도선 죽지도 못헐 꺼고, 나 육지 나가민, 육지 간다허곡, 객선에 가서 타며는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잇겠다해서, 선들에²⁴⁾ 저 몸뻐 하나 입고 외양목²⁵⁾ 적삼 하나 입고 떠나온 게 죽지도 못허고, 부산 오랏다가 또 거제도 가서 한 삼 년 살다가, 거제도서 또 혼자 젊은 여저니까 못 살더라고. 영감 하나 만나가꼬 헌게, 강안도²⁶⁾ 멩테바를²⁷⁾ 간데, 멩테바르 온다고 주문진을 따라 오니까. 파도에 또 배는 뿌수외²⁸⁾ 불고, 또 끈쳐 놓으면 또 뿌수와 불곡,

22) 집밖에는.

23) 물질.

24) 선달[十二月]에.

25) 옥양목(玉洋木).

26) 강원도(江原道).

27) 멩태(明太)잡이들.

배를 세 척을 부수와 불곡. 제우²⁹⁾ 고쳐가꼬 시니까³⁰⁾ 빗지와서 살 수가 없어. 이러니까, 영감 보고 ‘우리 도망을 가자. 이 빗지와가꼬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혼 서른 두어서넛 뗏는가 바, 나는 기억도 안나, 기억조차 안나. 그래서 밥을 사올나을 굶고 입을 것도 엇고³¹⁾ 옷도 다 팔아 먹고 엇으니까. ‘이제 어디레³²⁾ 도망을 가느냐?’ 허니까. 소문에 들은 게 우리 영감 큰누님이 속초 산다 말만 듣고, 나 생각 ㄱ뜨른 북촌서 ㄱ뜨른 조천 감마니³³⁾, 주문진서 조천 감마니 혈건가. 동네 뱃깃땨³⁴⁾ 안 커보곡, 부산까지 오라서 이 강안도까지 오니까. 주문진이른, 속초머는 우리 ㄱ을 ㄱ뜨민 조천만이 허른 걸영 가게 뉘서. 정월 초사은날, 초이튼날허고 초사은날 밤의 얘기 하나 업고 나서니까. 오다 봐도 수천 리라. 피란 오는 사름덜은 그리 고생 안 헛데. 그래가꼬, 그 세 설 먹은 거 업으니까. 업은 애긴 발 실리다고, 이리 둘러퀴니까 발자국을 냉길 수도 엇고, 영감은 사올나을 굶은 사름덜이니까, 영감은 우선 밥 달란 말은 안 허데, “담배 먹고 싶어 못 견겘다.” 허고 나는 배고픈 줄도 몰르고 눈이 벌정허니까. 뭐 어떻게 헨 줄도 몰르고. 그래가꼬, 속초 딱 떨어지니까. 제우 오다가 나가 ‘돈이 백팔십 원 잇다.’고, 영감 보고 찰 타자고. 그래서 걸어오다 걸어오다 버치니까. “돈이 어디 잇냐?” 그래서, 나 어제 배에 줄 걸린 거 끌러가꼬 돈 백팔십 원이 잇는데. 그런데 선덜 초이튼날, 선덜 구믄날쫘 물엔 들어간 거 같애. 그래서 돈 백팔십 원을 놓고 차를, 그 땐 완행이여, 남저덜 조수라고 탕

28) 부수어.

29) 겨우.

30) 있으니까.

31) 없고.

32) 어디로.

33) 가는 것만큼.

34) 바깥[外]에를.

땡기는 거. 그건 손을 들르니까. ‘백이십 원을 달라.’허데. 그래 백이십 원 주고 찰 타서 속초 오니까. 집은 십 리 허나 썩이고 씨누이가 어디 사는 줄도 몰르고. 그래도 찰 ‘죽을 남³⁵⁾ 밋되³⁶⁾ 살 나무 잇다.’고, 어디서 “웨삼춘”³⁷⁾ 허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 보니 씨누이 아덜이라. 그래서 따라 가니까. 씨누이 식술³⁸⁾도 으숯 식술 때³⁹⁾ 굶엄고. 그래서 인제 바닷가일 좃앗져. 바닷가일 좃으른 내가 해녀 할 줄 아니까, 먹고 살께라. 그래서. 그 때 시절에 뭐 고무옷이 잇었나. 뭐 잇나, 뭐 사루마 다⁴⁰⁾ 하나 입고 맨몸에 들어갈 때. 좃으니까, 그러저럭 허다보니까, 이월 덜 쫘 돼어서. 이월 덜 돼니까. 뭐 해녀 무런 허겠다고, ‘흔 번 나가 본다꼬’ 허니까. 해녀들 만나믄 ‘조합 잇언 못 들어가게 한다.’고, 바렌 책도 안허더라고. 그래서 해녀 할머니가 흔 분이 “니 어디냐? 고향이.” 그러더라고. ‘나 조천면 북촌인데 어찌하다 본께 거제도 와서 신랑 얻어 갖고 주문진 오랏다 먹고 살 일이 못돼서 여기 오라서.’, “그러믄 아무 날은 와라. 미역허는 날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바보지. 그 할머니가 기구는 다 얻어준데. 월정이노렌. 그 할머니인 이젠 돌아가 없어. 낮이라도 허나, 나무허는 낮이라도 얻어가 와야 돼는데, 그냥 내려온 물에덜 막 물에 들어가더라고. 얼마나 악이 낫는지 손으로 여긴 미역은 제주도 미역 안 곱고 새메역이라고 뜯난 거, 막찢긴 거 잇어. 그거를 사을허니까. 쌀 한가마 나오더라고, 사을을 캐니까. 그래가꼬 씨누이덜 신디 그거 쌀 시주곡, 여기 인제 방을 하나 얻어 주겠다고, 그 할머니가 그래서 불도 안때는 방을 허나, 그때 뭐 한 삼십 원 쫘는가, 방세를

35) 나무[木].

36) 밑에.

37) 외삼춘(外三寸).

38) 식술(食率).

39) 아침·점심·저녁에 일상적으로 일정한 때에 먹는 밥.

40) きる-また[猿股]. (남자용) 팬티.

뭐 한 오십 원 쫓는가, 그랬어. 얻어줘서 여기 오니까. 해녀덜은 땅에도 누게 하나 말힐 사람이 있어. 조합에설 오던가. 뭐 어디 수산과에설 오던가. 말하나? ‘해녀 모임 잇다고 저 시청으로 오라.’ 해서 가며는, 저 부얼리 해녀하고, 여깃 해녀 허고, 혼 오십 명 뒤테라고. 하나 말힐 사람이 있어서, 내가 나서서 말을 허니까. 할머니 해녀회장을 허렌. 해녀 회장 해야 뭐 이름 성명 든 것도 아니고, 그자 해녀 지호⁴¹⁾만 해렌. 그래서 몇 년 동안 했져. 허다가는 이제는 나가 작업철 형편도 안 뒤테 허니까, 그냥 조합에 든 것도 금년에 조합에도 탈당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해녀덜은 남저 고기잡는 사름덜은 조합원인디 조합비가 많이 들어가는디 해녀덜은 그때 삼만 원씩 내노라 해서 들었는데, 오히 탈당을 허니까. 십오만 구천원인디, 내년 이월덜이나 인제 통장으로 올라온다 그러더라고. 금년이 가 탈당허고 그래서 사는디 이제 다 늙어불고, 뭐 아들이 있어 딸 하나 그거 서울로 시집 가부니, 혼자 사는 거여. 그래서 해녀노래도 가끔 오라서, 그 때는 해달라고 그래서 이젠 안 해서 저번에 앉아서, 그란해도 얘기허명 “야! 그 때 해녀노래 헨 돈 벌어 먹었다.” 허고 웃고 허는다.

(조): 해녀노래 그 혼 곡지 해봅서.

(제): 혼 번 허라고 이거 나왔서. 나말 다 나올로구나, 여기서.

(조): 예, 나올거우다. 경헌디 이건 혼자만 듣는 거. 혼 번 해봅서.

(제): 뭐 해녀노래 제주서 허는 건. 그 때 나 혼 번 국악인 허는 걸 보니까, 우리 허듯 안허데. 국악인 아으덜 베와 주는 거 내가 봤거든. 그러는디, 우리 허듯 안허드라고.

1.

이여사나

이여도사나

41) 지휘.

이여싸	이여싸 하
요 네를 저고 ⁴²⁾	어디를 가나
진도 바다	한 골로 가자 하
하루 종일	벌어 봐여 허

(제): 아이고, 또 가사가 꼭 맥혀.

(조): 하하하(웃음소리).

(제) 2.

해 다 지고	저문 날에
골목마다	연기가 나고
하루 종일	애썼으나 하
번 거든	기가나 맥혀
어서 지고	집의 가서 허
우는 애기	젯을 ⁴³⁾ 주고
병든 낭군	밥을 주자
이여도사나 하	이여싸 하

(제): 그건 제주도서 허고. 이젠 육지서 팔져 혼탄해서, 이건 나 혼자 허는 거라.

(조): 예, 해봅서.

(제) 3.

강안도 ⁴⁴⁾	금강산이
금인 줄만	알았더니
나무나 돌곳 ⁴⁵⁾	내 눈물이야 하

42) 요 櫓를 저어서.

43) 젯[乳]을.

44) 강원도(江原道).

45) 바위굴.

안동 ㄱ 뜬	요 내나 몸이
철대 ㄱ 찌	다 몰라가고 ⁴⁶⁾
비옥 ㄱ 뜬	요 내나 풀이 ⁴⁷⁾
남대 육대	다 몰라가네 헤
아침에는	성현 몸이
저녁에는	병은 드난 ⁴⁸⁾
불르는 건	어머니로다
찾는 ⁴⁹⁾ 것은	냉수로고나 하
이여싸나 하	이여싸 하

(제): 이젠 나 강안도 오라서, 팔저 혼탄을 허는 노래를 자꾸 무례를 가면 나 혼자 불러. 이러는디. 뭐 제주도 노래도 많애. 소섬 사름은 또 또나 게 허더라고. 소섬 사름덜은 우리 ㄱ 찌 안해. 우리덜은 이 북촌이엔 헌 딘 전부 해녀 배가 그때는 터우⁵⁰⁾엔 헌 거, 배엔 헌 거, 혼 집의 두세 척씩은 꼭 찾주. 우리 마을에는 경헌디, 그란해도 요 번에 보니까. 우리 동생 각시가 아주 해녀 상군으로 나와가꼬. 아덜이 저 차 사고 낫어, OO이라고. 그걸 데리고 갯창에 나가서, 거 그 우리 동서 각시도 테레비에 나오더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아덜 그 빙신 데리고 바닷가에 가서 옛날은 육지 가서 고생허고 했노라고 나오더라고. 내가 가만히 앉아서 테레빌 보니까. 나도 뭐 팔저 혼탄을 할라든 행편도 엇지. 그렇지마는 여기 와서 뜰 하나 그거 봉가까꼬, 그자 키와서 살다보니 고생도 그럭저럭허고 해녀신디 갈라머는 여기도 가도 제죽해년 책임

46) 거의 말라가고.

47) 팔이.

48) 병(病)은 드니까.

49) 찾는.

50) 테[筏]를 말하는데, 제주도에서는 <테>·<테우>·<테위>·<테베>·<터위>·<터베>라 일컬어진다.

자가 엇고 소섬 할머니 하나. 그 할머니가 지금도 바다에 가 엇어. 저녁 때, 밤이나 만나, 그 할머니를.

(조): 소섬 할머니 그 노래 혈 줄 압니까?

(제): 해녀질만 허여, 여기 오라서. 노래허겠지. 그 할머니도 잘해.

(조): 어디 사시는고 마썸.

(제): 저기 비치횃집이라고. 요기 비치횃집 허는 디 딸이거든. 엄마는 요 이 동으로 들어가며는 밤이야 만나지, 낮이 못 만나, 그 할머니는.

(조): 비치횃집 큰딸이?

(제): 비치횃집 큰딸이 소섬 사름이여. 여기 제주 사름 많애. 여기 식당허는 아오도 흥나 잇고, 뭐 해녀 할머니도 요기 잇고.

(조): 아까 그 부른 노래 중에.

(제): 어영.

(조): 남대 육대 7쁜 이내 몸이. 이거 남대가 무신 말이우파?

(제): 남대 육대 이거 몰라간다고. 나무 모양으로 다 이내 몸이 몰라간다고, 이내 몸이 아.

(조): 남대가 경허른 나문 나무고?

(제): 나무처럼 돌른다 그거지. 남대 육대 다 몰라 간다. 나무처럼 이제 다 이⁵¹⁾ 몸이 다 몰라간다 그러고. 또 해녀덜 육지 오며는 “어장칠릴 동동팔릴 언제나 오며는 우리 고향 가카.” 그거는 이제, 제주서 육지 오라가 별다가 제주 갈라고 허는 노래가.

(조): 흥 번 해보십서.

(제) 4.

어장⁵²⁾ 칠릴⁵³⁾ 동동⁵⁴⁾ 팔릴

51) 자기.

52) 어정정한 모양.

53) 7월. 여기서는 음력 7월.

언제나 나면	돌아나 오라
우리나 고향	가나 볼까 하
이여사 하	이여라싸 하
이여사나	이여도싸라 하
쳐라쳐라 하	이여쳐라 하
어서나 가서	고향 가서
부모 형제	만나나 볼까
이여싸 하	이여도싸나 하

(제): 해녀노래가 많지, 이게 팔저 혼탄. 해녀는 다른 걸로 허는 게 아니고, 팔저 혼탄을 허는디, 옛날 우리가 크니까. 해녀가 제주도서 막 일 제시대에, 막 그냥 싸움을 낫는데, 해녀가 일본놈덜 총살이 무서와도, 해녀가 막 우리 신랑을 달라, 우리 신랑을 몬딱 군인을 보내불고, 여 저덜이 살 수가 어시난. 관덕청 마당을 두렁박⁵⁴⁾ 들고, 빗창 들고 막 시우⁵⁶⁾. 지금 ㄱ트면 막 시우허는 거지. 옛날 우리 크기 전에 막 들어 갖다그래. 그러기 따문에 해녀는 두렁박 하나 들러서, 여기 쪽웃만 입고서 텅겨도 거침이 없다 그래. 죽고 살고 몰라가 그 때 막 일본놈 허고 막 대치했데. 이제 우리도 밥을 주고 쌀을 달라 신랑은 왜 다 군인 다 보내두고, 우리를 이제 못 살게 구느냐. 일본놈 허고 대치해 가꼬 제주서는 까구리라고 여기서는 굴갱이⁵⁷⁾ 닳은 거 갖고 텅기저 마는 제주서는 빗창⁵⁸⁾ 그거 들르고 쪽웃바랑⁵⁹⁾에 관덕청 마당에 가

54) 간절하게 기다리는 모양.

55) 테왁. 해녀들이 물질할 때 그 浮力을 이용하여 가슴에 얹고 해엄치는 연장으로 서 예전엔 박으로 만들어 쓰다가 이제는 모두 스티로폼을 이용하여 만든다. 이 테왁 밑에는 채취한 해산물을 넣어 두는 ‘망시리’가 달려 있다.

56) 시위(示威).

57) 호미[鋤].

58) 해녀들이 바다에서 전복을 캐내는 데 쓰이는 길쭉한 쇠붙이로 된 연장. 길이는

서 막 일본놈허고 붙었데, 옛날 시절에.

(조): 음. 할머니가 옛 살 때쯤이다. 그 때가?

(제): 어영, 우리는 낳지도 안 했지. 안 낳을 때 우리가 크니까 그 말을 허더라고. 막 옛날은 그러니까 육지 오라서도 누가 건드리기만 건드리민, 두렁박을 혼 놈이 이제 뜯 막을 가 몰래허니까 바가지를 깨부러서. 우리도 막 시우허고 막 난리가 낫어. 바가지엔 현 거 생명줄인디. 우리는 고발허겠다. 그러니 막 어촌계장이 막 빌고 그렇게 다 해보고. 해녀덜, 그때 시절엔 뭐 해녀 사름으로도 안 알아도. 이제는 봐, 육지 사름덜 해녀덜이엔 허든 막 잘 생각허고. 여기서 왜 황영주라고 허나?

(조): 예, 황영조.

(제): 아, 그거 해녀 아덜이라고. 이제는 여기 저녁 때 돼며는, 지금 가며는 해녀덜 물건 풀거여. 요 앞의 다리에 놓아서. 그러디 그때 시절의 한 오 년 전의 저기 다라이 못 놓게 했어. 그러니 좋다. 우리는 여기 질을 막겠다, 해녀는. 여기 질을 막고, 느그들 해보자고. 우리 물건 못 풀게 허든 해보자. 우리 저것도 싸와가꼬 해녀덜 거기 앉게 허고. 해녀덜 또 그 우에다가 물 받아가꼬 물건 살투는 것도 해주고. 해녀도 권리를 좇아서 여기서도. 경헌디 저 청호동 해녀덜은 그런게 엇어. 해도 시장 가 풀지 여기서 푼는 것도 엇고. 그러니 청호동 해녀덜은 살기는 막 힘들어. 경헌디 여긔 해녀덜은 잘 벌어, 잘 벌고. 해녀 권리를 막 여기서 좇아서.

(조): 할머니 거 뭐파 거. 여기 집이 속초시 동명동?

(제): 영금정 아파트.

30cm정도이고, 머리 부분은 끈으로 묶을 수 있도록 동그랗게 말아져 있다.
59) 속옷[內衣] 바람.

(조): 영금정 아파트 101동 203호 이기순. 이자 기자 순자. 한자로 기자가 무슨 기자우짜?

(제): 터 기, 순할 순.

(조): 생일은 메칠이우짜? 태어난 날?

(제): 음력 스월 열하루라.

(조): 몇 년도?

(제): 몇 년도 몰라. 나 그런 거 몰라.

(조): 올해 일흔여덟인데?

(제): 일은으뜸. 그런 거 아무 것도 몰라. 난 여기 와서 밥 못 먹어서 그 자 밥 먹고 살 연고만⁶⁰ 했지. 경헌디 저 제주도 스삼 사건에 우리 마을은 다 걸어졌잖아. 그랬든지 저번 때 혼 번 제주도서 찾아왔더라고 “나 혼차 우리서 제주도서 찾아왔는냐고.” 헌께. “제주도서 그 시국에 몇 명 살고, 몇 명 죽은 걸 조살 왔다.”고 해서, “할머니가 젤루 어디가 아프냐?”고. 그래서 “다리가 양쪽일 못썬다.”고 허니까. 도립병원에 와서 엑스레 찍고, 다 엑스레 다섯 번을 찍던가, 오섯 번을 찍던가 허더마는 과장이 “이 다리 아픈거는 그때 해당이 안뒀겠다.”고 그러허는데, 그 사름이 허는 말이 “그래도 그 때 다 풀병 아납니까?” 허니까. “그건 그러지요.” 허니까. 공짜로 약을 뇌주고, 제주도서 와서 해주고 가니까. 공짜로 약도 타다 먹고 파썬 것도 다 주고 허는디, 하도 영 몸이 불어서 먹도 아니허고 타다 놓고 그냥 있어. 한 달 혼 번 그 때 제주도서 와서 그랬어. 그 사름이 서문통 사름이라 허든가 한림 사름이라 허던가. 하여튼 ‘균청엔가 어딘가 있다.’고 허더라고.

(조): 나이가 몇 살 정도 돼수까?

60) 연구(研究)만.

(제): 자네 나이나 비슷헌거 같애, 이름은 말 안 해주고. “아, 나 혼자 우러서 강안도 왔는가?”고, “예.” 그러더라고. “그러며는 아침 밥은 어떻게 했느냐?”고 그런께. 오닐 오라서 전할 왔더라고. “널 아홉 시꺼지 오라.”고. 그래서 “아침밥은 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나 혼찰 우러서 강안들 오라시믄 내가 미안해서, 그러믄 나허고 가자. 우리 동네가며는 회도 많이 잇고, 맛있는 거 내 좀 싸주겠다.”고. “하이고, 할머니 그런 말씀 마시고, 약을 계속 타다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그 신경통 약 먹어가니까, 이렇게 붓는 게 얼굴이 다 붓고 그래서 안 먹어가꼬. 약은 타다가 다 달아놓고 있어, 안 먹고.

(조): 할머니, 이 뭐짜? 해녀노래하고 해녀들 옛날 살아온 얘기를, 제가 지금 공부를 시작해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거를 서울에 살면서 여기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우파게.

(제): 힘들고 말고.

(조): 힘들게 오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할머니를 못 만나니까. 도대체 어디 살압신디? 이 할머니가 노래를 할 줄 아는지?

(제): 그런데 몬저 날 좇아온 사름덜은 시청에 가니까, 나 이름이 이시니까 보냈더라고. 시청에 수산과에, 그래서 가니까, “할머니가 노랠 젤 잘헌다.”고 해서 왔는데 그러더라고. “어따, 이름도 잘 올라 잣다.” 그런께는.

(조): 그 거제도에 있을 때는 삼 년 동안 있을 때 할머니가 그때는 주로 뭘 해수파? 미역?

(제): 미역.

(조): 미역허고 또?

(제): 미역 해가, 반 갈라. 바다 임제⁶¹⁾는 십 분지 육을 먹고, 사 분만 이

61) 임자.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

녁이⁶²⁾ 먹은 거야.

(조): 경허니까, 잡은 거는 뭐 잡아수짜?

(제): 미역밖에 엇지, 미역. 경허디 여긴 오니까, 주문진은 오라서 배 가
지고 오니까. 무레질 허는 줄 몰르고. 그래서 여길 오니까. 여기 할머
니 혼 분이 “느 제죽아 아닌디야?” 그러더라고. “제주도노라.”고 아까
도 말했지마는 그래서 무레질은 시작했는디, 백 명이 가도 일등이고
나가 잘했어.

(조): 상군이었구나, 대상군.

(제): 어영, 상군도 그런 상군이 엇지. 여기도 와서 그런디, 뭐 벨양⁶³⁾이
머구리 상군이라.

(조): 별명이?

(제): 옛날 사름이 머구리네 집 어딘고 훑아와야지. 경 안허믄 못 훑아와.
경허디 지금이라도 가며는 나 앞의만 물건이 잇는 줄 알고, 뜬 사름
불러 이리 오라고. 가며는 뭐가 비둘비둘헌 거 2테. 물어든가 뭐가.
그러는디 내가 친정도 잘못 만나고, 아덜이 엇어서 친정이 망한다고
그자 다 보태주고, 딸도 또 시집 잘못 가서 보태주고 허다보니까, 돈
도 엇고 인제는. 나라에서 배급을 주잖아 배급을 주니까. 어제도 가
배급 타왔다고. 그라고 민박, 이집을 침 먼저 들어오니까. 아까 그 데
령 온 아으 각시가 “할머니, 민박을 좀 받아보라.”고 그러더라고. 그
래서 “민박을 어떻게 해서 받느냐?” 허니까. “할머니, 이불자리가 많
으니까 민박 받아도 돼.” 허더라고. 경해서 저저 동해에 잠수함 들어
오기 전에는 매일 손님이 있어. 매일 손님이 이시니까. 그때는 뭐 만
원도 받고, 오천 원도 받고, 하루밤 자면은 이렇게 받는데.

62) 자기가.

63) 별명(別名).

(조): 여기 와서 잡은 건 미역허고?

(제): 쳇 해로 올 때는 미역. 이젠 미역 안해. 전복은 못 풀게 허거든, 못 풀게 해도, 나는 지금이라도 가믄, 전복 혼 소쿠리 잡을 수 있어. 안 가서 그렇지. 전복이 딱 요래 제주 오분작보다 잘아. 그러는 것도 못 풀지. 들키기만 허믄 벌금이거든. 못 따게 허믄 술짝술짝⁶⁴⁾ 잡아다가 횃집의 다 모앗다가, 이제 손님도 오면 죽도 썬 주곡, 팔기도 허곡 그러는데. 전복, 제주선 보말, 또 저 제주선 그거 엇어서 밧조개⁶⁵⁾라고, 해섬, 성기. 잘 벌어, 여기 해녀덜.

(조): 할머니가 주문진에서 여기를 왔을 때, 주문진에선 뭐를 주로 잡아 수파. 거기선 안하고 명태만?

(제): 안 했지. 여기 와선 미역. 미역만 했지. 여기 와선, 뭐 다른 거 허는 줄도 몰르고, 미역허고 한천 해다가 풀고 또 성기는 일본 수출허는 데레 막 해서 풀앗잖아. 들어가믄 뭐 성기고 전복이고 해섬이고 그자 막 끄서내다가 팔 줄 알아? 냉겨줘블민 반 금이지, 반 금.

(조): 거제도서는 육 대 사로 나누었는데, 여기 와서는 몇 대 몇으로 나누어수파?

(제): 여기서는 우리 막 먹지, 안 주고. 어촌계서도 혼 덜에 스 만원씩 내는가, 어촌계비를. 그라고는 이녀이 막 먹으니까, 허고 싶은 대로.

(조): 옛날도?

(제): 옛날도.

(조): 할머니 처음 왔을 때는 미역도 그냥?

(제): 경헌디 못 캐게 허지 수협에서, 키와서 캐 먹으라고. 그러니까 혼 번은 수협에서. 야, 순경덜도 침 순경 월급에도 그러니까. 잼히기만

64) 살짝살짝. 몰래몰래.

65) 딱조개.

허른 내물⁶⁶) 안 주어 그네 징역 살아야돼. 그러니까 하루는 저 오구 축항이라고 해녀덜 두렁박을 빼앗아 가니까 다 빼와야 돼잖아. 그런데 나 혼차 가기가 뭐해서 해녀 혼 분을 데리고 갔어. 가니까, 가다가 꿈⁶⁷)을 하나 시주더라고. 난 멋도 몰르고 씹고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이것도 법관인디 벨아 내불고 가야겠다고 허고 벨아 내불고 가니까. 나한테 꿈을 사준 아이는 꿈을 씹고 들어간 거야. 거기서 “이거 어딘 줄 알아서 와서 껌 씹느냐?”고, “이것도 법관이라.”고. 그렇게 순경이 또 지랄허데. 그놈이 죽었어. 우리한테 내물 많이 먹은 놈이. 껌히기만 허른, 미역허당 껌하기만 허른, 그 치운디 붙들어당 다 가두와 놓는 거야. 그리고 딴 바다에서 오라서, 전복 2뜰 거 따 달라고 그래. 그러며는 그때는 또 부아리⁶⁸) 받고 가고.

(조): 부아리 얼마나 받아수짜?

(제):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 주는지 몰라. 하루 일당 얼마 받고. 그때는 뭐 하루 가서 미역 캐른 이만 원도 받고, 만 원도 받고 그렇게 해주고.

(조): 옛날에 몇 년 전이우짜? 그 때가?

(제): 그거 우리 오라서 몇 년 안됐 때까지.

(조): 여기 속초 왔을 때?

(제): 어영, 속초 왔을 때. 이 속초서는 막 먹어.

(조): 거제도에서는 바당 주인한테 육(六)을 주고 할머니는 사(四)를 가졌는데, 여기서는 어촌계비만?

(제): 어촌계비만.

(조): 예, 어촌계비만 내고.

66) 뇌물(賂物).

67) 껌(gum).

68) 일당. (급료 등을) 일수(日數)로 계산함. ひわり[日割り] 히아리.

(제): 그때 시절에는 혼 이만 원씩 냈나?

(조): 이만 원만 내고?

(제): 지금 혼 스만 원 낼 꺼라, 어촌계비를.

(조): 한 달에?

(제): 한 달에.

(조): 나머지는 다 먹고?

(제): 다 먹어. 그러니까, 여기 해녀덜은 집 잇는 사름이 었고, 가난한 사름이 었어. 그리고 법에서 해녀 옷 벗는 집을 지어 줘서. 물 텨혀가 목욕하고 옷 벗고 입고 허는 디 지어 줘는디, 우리 돈을 반을 내놓고. 그 때 칠백만 원을 들었다 허는 거 같애. 우리 돈이 반들어 갖지. 그래서 이제도 그 해녀덜 집이 잇어.

(조): 해녀집 지은 때가 여기 왕 멧 년쯤 되었을 때 지어수파?

(제): 혼 십 년 돼시카. 이제 집 짓건 디가 십 년쯤 돼실거여. 경헌디 ‘저 청호동은 재작년에, 삼 년 전의 지었다.’ 허더라고. 청호동 해녀덜은 또 권리를 못 잡아.

(조): 물질허당 보른 상어나 곰새기 이런 거 안 만남네까?

(제): 아니, 여기는 그런 거 었어, 그런 거 었고. 제주도서는 그 곰새기덜 막 이젠 그거 보니까. 곰시기가 고래새끼더라, 돌고래새끼디. 우리 제주도선 ‘곰시기 곰시기 배알로 가라, 배알로 가라.’ 그거 와도 무서운 줄 몰라. 나 어린 때는 큰고기 만나서 죽을 뻔허당 살아서, 제주도서.

(조): 무슨 고기?

(제): 제주도서 처녀⁶⁹⁾ 때라. 처녀 때도 그땐 다부지게 무례질을 해서. 아버지든 딸 살림허니까. 엄마하고 삼서 무례, 아매도 혼 오월 달이나 뒹꺼라. “아이고, 저 우리야.” 저 똥싼짐이, 똥싼짐이허는 바우가 잇어.

69) 처녀.

거기 히여가서, “우리 못 숨비며는 이렇게 가서 문질리거나 허고 오자”. 그런데 우리 동갑이 혼 너다섯이 총총 히여⁷⁰⁾ 가서 문져 팍 들어갈라니, 땀마만이 혼 고기가 사름신데레 쪽 오는 거라. 그런데 나는 그냥 낮으로, 바빠서 낮으로 콰악 짤를라고 허는데, 거 그 고기가 게도 안 죽을라 허니까. 그게 이제 2뜨른 상언중도⁷¹⁾ 모르지. 이 쪽웃 바람에 물에 들 때니까. 씨각 몸을 씨대고 가는데, 차르륵 허더라고 그랬는데, 난 그냥 나오다가 히떡 자빠지비었어. 가으덜이 막 끄서가 꼬, 우리 엄마가 저 등대 2뜨른 산에 서모오름이라고, 서산봉⁷²⁾이라고 있어, 우리 므을에. 밧디 보리 비는데, “아이고, 기순이 죽었다.” 해는께, 우리 엄만 보리 비당 다오꼭 난리가 낮어. 그때 혼 번 처년 때 큰 고기 봐났어.

(조): 그 때가 멧 설쫂 뉘신고 마쫂.

(제): 그 때가 혼 열대여섯 뉘신가. 그 때 큰고기 혼 번 만나보고는. 여기 와서 또 무래서 송장도 만났어. 송장도 만나도 놀래질 안해, 나는.

(조): 으응.

(제): 그레가꼬, 뉘 봐도 즈쫂이 본다는 게, 정말 이게 송장이나? 아니냐? 다부 들어가 본께는 머리 퍼 죽은 송장이 있어. 그래서 그냥 막 히여 오는데, 뒤에서 막 잡아 멩기는 거 곶애. 그래서 놀랜 적도 있고. 그레도 고기 2뜨른 거 잇어, 여기는. 아무 것도 잇고. 또 물때가 잇다고, 여기는. 아침의 밥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저녁의 밥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물때가 잇는 거여. 제주도나 전라도 2찌 물때가 어시니

70) 해엄쳐

71) 상어인지도.

72)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169-1번지에 있는 산으로서 ‘서모·西山·犀牛峰’의 3가지 명칭으로 불리워진다. 서우봉(犀牛峰) 꼭대기는 조천읍 함덕리와 북촌리를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

까. 그자 그냥 이녀 마음대로 강 벌어오곡. 그러니까 돈을 몰라가고, 나신디 거랭이도 오른 붙어 쥐불곡. 팔 엇는 사름이고, 손 엇는 사름이고, 질레서 이래 밀영 땡기는 사름 보른 못 넘어가. 주머니 털어볼어야 돼 이룬다. 자아, 이딧 군인, 이제는 저 해양경찰대 순경덜이 사는데, 그땐 군인 초삿막이여. 군인을 혼 백 명을 내가 접관해서 보냈어. 경헌디 제주돏 아으가 흐나 왔더라고. 한림 아은디? 소섬아은디? 나한티 왔는다. 그게 상뵤인디 그렇게 아으덜을 잘 때려. 그래서 나 그건 상대 안 해봐서, 사름 때린다고. 그랬는데 이제 무신 작년꺼지도 좇아오는 아으덜이 있어. 다 장개가고 살림살고 그래도, 돈도 지금도 그때 꿇준 돈덜 못 받은 놈도, 저 전라도 아으덜도 다 켜간. 돈 벌른 아무나 쥐 불곡. 지금도 못 받은 게, 혼 이천만 원 뉘연. 그래도 뉘이젠 돈벌 생각도 엇고, 그자 이렇게 사는 거라.

(조): 여기서 허다 보른 심만나지 았읍니까? 물이 갑자기 막 차가워지는 걸 뉘렌 험니까?

(제): 아, 하하하. 그거 엇어. ‘심마, 심마진다꼬’ 허지. ‘물에 가면 심마진다’고 허지. 그런 것도 잘도 알암신계게. 저 아래서 심마지며는 해녀덜 안 와가꼬, 물 알아보라고 상군 들이치고 이룬다 허는다, 여기는 그런 것도 엇어. 물이 찻던가 뉘 얼음이 뉘던가. 옷이 세벌이거든, 이제 하는 거는 한 욱 미리, 지금 입는 옷은. 또 흐쉴 봄에 입는 거는 혼 오 미리, 여름에 입는 거는 삼 미리 반이여. 그러믄 여기 사름덜은 쉬는 날이 엇어. 으응, 고무옷 입어 논께. 그러고 이제 심심허믄, 그 때 시절에 우리 젊은 때는 춤추레 잘 가더라고. 우리 혼 번 먹자 허믄, 해녀덜 잘 놀잖아. 막 장구덜 사다 놓고 춤덜도 추고 허다 버치믄, ‘아, 우리 오닐 춤추레 가자.’ 허믄, 그 때 시절에 막춤 추는 디가 잇테. 나는 술도 먹을 줄 몰르고 담배도 피울 줄 몰르고. 웨 그러냐허

른, 영감이 하도 술먹어서, 뉘 영감을 얻어 만났어. 그래서 내가 입에 술을 대는 건 내 사름년이 아니지 이려고. 뱃장이 썰서 내가 부모 제서 멍일에도 여저라고 절을 못허는다. 육지 오라서 도민회가 있어. 여기 도민회가 있는데, 도민회도 안 들고, 누게 죽영가도 난 절 안허는 사름이여. 내 부모안티도 절 못했는다, 내가 남으 부모안티 왜 절 허느냐고. 그래 뱃장을 썰게 산 사름이여. 누게 나 앞으로서 말도 못해, 나 젊은 때는 뭐 누가 날 건드리기만 허문 그래, 지금도 그래. 내가 심심허문 고스뉘치레 좀 가, 가문 영감덜 좀 우시게 혈라꼬 허문, 누게라도 따로 내무래고, 나허고 장난도 허라고, 난 장난도 허고 싶지도 안 허고. 그래서 여기 민박은 사름덜이 그래, “할머니 술 잡습시다, 담배피라.”고. “아, 이 때까지 뭐 하고 살았소.” 날 보고. “나 해녀질만 헨 살았다이. 나는 해녀뱃기⁷³⁾ 헨 거 엇다.”

(조): 할머니 여기 있을 때, 여기서는 네를 안 저어봤지 예.

(제): 네 안 지여 봐.

(조): 제주도에서도 안 지여 봐. 거제도에서?

(제): 거제도에서도 지였저.

(조): 경허문, 해녀노래를 배운 게 북촌에서 배운 거짜?

(제): 북촌에서. 거기서는 서로 이제 하노 것이라, 젓걸이 것이라, 막 하잖아.

(조): 하노는 뭐짜?

(제): 하노는 큰네, 배 운용허는 거, 그거는 잘 못 젓어. 경헌디 젓걸이엔 헌건 율이 돌아정 젓는 거. 그런 거 허머는 서로덜 질라고 날리여, 바다에 물에 들어 갈라꼬 뭐.

(조): 멧 명이 쳐수짜?

73) 해녀밖에.

(제): 보통 뭐 짓걸이 저을라든, 네 세 척 논 배도 있고, 다섯 척 논 배도 있고, 빨리 갈라고 짓걸이 두 개 허고, 하노 하나 허고 어, 그러니까 우리 고향은 이제 그 때 시절에도 순경이 잇더라고 널 때역 조문헌 다 허든 오닐 큰축항에, 또 저 동축항 서축항에서 줄을 때여, 줄을 때여가꼬, 이제 배가 다 거기 가 모여실 꺼 아냐. 모여시며는 총을 팡 허며는 서로 앞의 갈라꼬 허다가 옷도 안 입고 물에 빠진 사름 있고, 수경도 안 썩고 물에 빠진 사름 있고 그렇게 해. 우리 어머니는 본래 조천 사름. 침, 우리 할머니는 본래 조천 사름이여. 하굴 사름인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려서 우리 할머니님 얼굴도 본 예가 었는다. 할머니님 동생이 제서 때 오라서 자꾸 말허는디, 조천은 양반. 밑을이고 우리 북촌은 쌍놈 밑을이여.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님, 우리 어머니가 얘기 혼 번만 때리며는, 우리 할머니는 쫓아내서 들어오지도 못 허게 해. 고모 앞의서 얘기 때렸다고 이 쌍놈의 7다니. 얘기 때렸다고 그래서 살았다고 허고 우릿 할머니 동생이 오며는 우리는 ‘아이고, 요 아버지’ 이러데, ‘요 아무람서든’ 아무 집이라 헐 소릴 그래, 양반 말투로 그러더라고. ‘요 아무람서든’ 그러데. 조천은 양반 사는 밑을이고 북촌은 보재기⁷⁴⁾ 사는다. 여기 사름 보재기 허든 육헌다 허든, 불보재기 사는 디라고, 막 쌍놈 밑을이라고 그래 응.

(조): 불보재기가 뭐짜?

(제): 불보재기엔 허든, 저 고기 잡아 먹고 고기 뺏질르는 사름.

(조): 으음, 보재기.

(제): 경헌디 여깃 사름은, 아, 제주도 가니 보재기라 허니까. 이 포따리

74) 포작(鮑作). 포작은 ‘보재기’의 한자 차용 표기로, 다른 자료에서는 鮑作·包作 등으로 표기된다. ‘보재기’는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조개·미역 등 해물을 채취하는 사람인 ‘보자기’의 제주방언이다.[李元鎭 著, 김찬흡 외 7인 譯, 『譯註 耽羅志』 (서울: 푸른역사, 2001), 155쪽]

말로 듣고 보재기라 허니 막 욱허드라고 허는 거 아냐. 보재기가 뜰루 있고, 포따리가 뜰루 있다. 내가 그런 말을 자꾸 해주지.

(조): 제주도 북촌서 네 저어 그네, 메역허레 갈 때 불리시쿠다, 주로?

(제): 주로 메역만 했주, 그 때는.

(조): 메역허레 갈 때까지 노 젓는 시간은 얼마나 걸린 가수파?

(제): 멧 분 안 걸려. 빨르른 얼른얼른 가지, 얼릉 가도 뭐 서로 돌아정네 젓엉, 네 젓고 올라오고 막허고.

(조): 네가 경허른 세 개 짜리가 있고?

(제): 다섯 개 짜리가 있고, 배가.

(조): 두 개 짜리는?

(제): 두 개 짜리는 엇고, 하나 짜리 터우라는 거, 나무로 이렇게 묶어서.

(조): 자리테우 같은 거?

(제): 영, 자리테우 2쁜 거 그런 거 있고 그랬는다. 이제는 우리 밑을, 딱 이제는 배 하나 있다고 허더라고.

(조): 옛날에는 자리테우는 혼자 젓엇고?

(제): 어영, 테우는 혼자. 세 개 짜리 있고, 다섯 개 짜리 있고. 다섯 개 짜린 해녀 혼 삼십 명 실어. 삼십 명 실으른 요 칸에 불 모여 놓고, 요칸에도 불 모이고, 또 요기 활대라고 잇어, 큰돛대. 거기다가 옷을 벗어가꼬, 다 줄줄이 다 묶어 놓고 물에 들어가민, 나오민 그 옷 입어가꼬 옷 테우가 싫으까 걱정되어가민, 다 그거를 옷을 묶엇다가 이제 이녀 옷을 좇아 입고 그랬어. 그런디 내가 수무 설, 열 이흠꺼지는 스펠 설겨진 무레질했어. 얼아으를 가져서 얼아을 놓고 무레질허고.

(조): 애 낳아 가지고 바로 물에 들어 가수파? 어느 정도 있다가 물에 들어가수파?

(제): 어, 아기 나서. 애기 나서도 옛날 할망덜은 뭐 그날 간다더라 허드

마는, 나야 애기 나른 뭐 친정부모 잇는다. 난 애기 나도 아파가고, 파될덜에 애기 나서 동지덜에 저 살아났는다. 저어 죽는다 했는다, 저 애기 나서 일차 못 가지.

(조): 그, 애기 들어보니까, 애기 낳고 바로 다음날도 물에 들어다고 허던데, 경해나수파?

(제): 어영, 그랬지. 옛날은 애기 나서 이제 보릿대 깔아서, 제주도 사름은 애기 나서 방에 피물을 거라고 그 보릿덜 깔데. 보릿대 깔았는데, 보릿대 쏘곶에 애기 눕혀 놓고 무래질 가. 그래허니까, 우리 시절만 해도 “아이고, 죽은 년아 물에 가게.” 허는 할머니가 멩데기 엄마라고 애기 열두 멩을 낳다는 할머니가 자꾸 가서 말허길 그래. “야, 난 애기 나도 사을만에 무래질했다, 사을만에.” 이라고. 우리 언니는 시국에 이제 함덕을 피란 갖는데, 그 함덕서 이제 북촌서 미역 허재⁷⁵헌다 허니까. 애기 나서 사을만에. 스삼 사건에 애기 나서, 애기 씨어머니 업히고, 언니 두렁박 짊어지고 북촌을 가서 무래질 헐라 허니까. 이제 이 밑에 허해서 못 허겄드래. 그래도 미역을 한 바구니 해서 씨어머니허곡 불 추와서 나오니, 배는 떠났드래, 애기 나서. 그 딸이 이제 손지 보왔어. 그래서 우리 언니 만나래, 거시기 우리 언닌 팔십헌 살인디 살았다고. 나보단 젊야. 저 굴막 살아, 저 동북 그랬는데, 그 우리 언니가 그런 말을 허는다, 함덕 오라서 애기 나니까 북촌 미역 허재헌다 해서 사을만에 갖데. 가니까, 여기가 허해서 못허드래.

(조): 아래가?

(제): 그럿더라고. 그런 말을 자꼬 언니가 와서 말해주니 알지, 나는 몰라.

75) 許探. 해녀들이 채취물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禁採했다가 어촌계장과 해녀회장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날짜에 해녀들 모두가 미역 따위를 일제히 캐기 시작하는 일. ‘해경(解警)’, ‘허채(許採)’, ‘대즈문’이라고도 한다.

(조): 제주도 북촌 해녀들 했다는 신세 한탄하는 노래들. 해녀노래 한 번 더 해줍써. 노래를?

(제): 어, 한 번 더 하라고.

(조): 아는 대로 짚욱 한 번 더 해줍써.

(제): 쪽 해봐야 그 노래지 뭐.

(조): 그러니까, ‘어떤 날에 나를 낳아 이 물질허레 험시고. 또 뭐 돈 벌 어 정든 님 술값에 나간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으니까?

(제): 어, 우리는 ‘물로 뱅뱅 돌아진 섬에 하루 종일 점심 굶어 무례질허 니 정든 님 술값에도 다 나간다.’ 그런 노래도 해봤는데.

(조): 해봅써, 흔 번?

(제): 저저, 그거 흔 번 거 국악인 허는 거 보니까, “하루 종일 굶어서, 어, 아침 굶어 무례질 헤영 한 푼 두 푼 모여낸 돈이 정든 님 용돈에 모지레 간다.” 그러더라고 국악인허는 거 내가 즈쫓이⁷⁶⁾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아, 요 해녀노래도 또 뜯나게, 애기덜을 ㄹ리차⁷⁷⁾ 주더라고. 국악인 여저가 나와서 그 여저가 김 뉘시라 허던데, 그 여저가 테 레비 나와서 국악인 ㄹ리치는 거 보니 그러더라고.

(조): 할머니가 허는 거 흔 번 해봅써.

(제): 우리는 뭐,

5.

물로 뱅뱅	돌아진 섬에 ⁷⁸⁾
삼시 굶영 ⁷⁹⁾	무례질 헤영 허
한푼 두푼	번 금전

76) 자세히.

77) 가르쳐.

78) 둘러진 섬에. 사면이 바다로 뱅 둘러쳐진 섬에.

79) 세 끼니를 굶어서.

정든 님 술값에 다들어 간다 하
이여사나 하 이여도사 하

6.

요 네를 지고 어테를 가나
진도나 바다 한 골로 가자 하
이여사 하 이여도사나 하
이여디여 허 쳐라쳐라 하

7.

놈의 고데⁸⁰) 애기랑 베영⁸¹)
허리지당 베지당 마라 하
퐁퐁 지영 어서나 지고
집으로 가자 하 이여사 하
이여사나 하

(제): 거제도 오라서 또,

(조): 아, 요 거 예, ‘놈의 고데’헌 말이 무슨 말이우짜?

(제): 남의 떠문에 애기 뱃나? 내가 뱃는데.

(조): 남의 고데?

(제): 응, 남의 고데 애기랑 베영, 허리지당 베지당 말고 이제 놀지 말곡,
이제 빨리 지라 가자. 그 소리지 남의 떠문에 애를 가졌나.

(조): 예.

(제): 이제 남의 떠문에 그래가 그러는데, 거제도 오라서 내가, 내가 지어
서 노래를 허니 해녀덜 혼 으남은⁸²)이 다 올었다고.

80) 남의 떠문에

81) 임신(妊娠)해서.

(조): 혼 번 해봄써.

(제) 8.

엄마 엄마	허는 아기
저 산천에	묻혀나 놓고 허
한라산을	등에다 지고
연락선을	질을 삼아 하
거제도들	떨 허레 오란 ⁸³⁾
받는 것은	구속 ⁸⁴⁾ 이고
지는 ⁸⁵⁾ 것은	눈물이로다
이여사 하	

9.

요 금전을	벌어다
우는 애기	밥을 주나 하
병든 낭군	약을 주나 하
혼차 벌영 ⁸⁶⁾	혼차 먹영
요 금전이	웬말이더냐 하
이여싸 하	이여싸

(제): 내가 애기 죽어둔 오라서 그 노래를 해서, 거제도 사름이 다 울엇
다고.

(조): 받은 것은 구속이요?

(제): 받는 것은 구속이라고, 남 한티 받는 것은 구속 뿐이고.

82) 여남은[十餘].

83) 무엇을 하려고 와서.

84) 자기에게 잘해주지 않는다고 흉잡음. 흉.

85) 떨어지는.

86) 혼자 벌어서.

(조): 구숙이 무슨 말이우짜?

(제): 아니, 남이 날 팔세허는 말이지.

(조): 아, 팔세한다고, 구숙이다.

(제): 응, 받는 것은 구숙이고, 지는 것은 눈물 뿐이고, 그 말이 맞지.

(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으니까.

(제): 딸이.

(조): 딸이 교통 사고로 죽으니까. 헛 거구나.

(제): 영, 내가 거제도서 놀 지고 가, 돌섬이엔 헛디. 그래서 그 노래를 지고 가가니까, 해녀덜이 막 울어서. 난리가 났어.

(조): 거제도 돌섬?

(제): 영, 해녀노래엔 헛 거 그거라. 뭐 다른 거 벨 거 엇어.

(조): 아니, 이것이 예, 처음 들어본 거라 마썸. 이거 해녀노래를 공부헌 지가 저도 한 이십 년 됩니다. 팔십 년도부터.

(제): 어디서 왔는데?

(조): 제주도서.

(제): 영.

(조): 서울 사는데, 제주도서부터 배우기 시작해영 주옥 들어왔는데, 할머니 부르는 건, 나 처음 듣는 노래주 마썸. 이런 노래를 주옥 더 해줍써, 더.

(제): 아니, 저저 재작년이 온 때는 이 노랜 안 했어.

(조): 예.

(제): 안 허고 그자 무례허는 노래만 했어.

(조): 무례허는 노래 해봅써.

(제): 영, 난 여기서 관광계 들영 관광을 잘가. 관광을 가민 이제 목소리가 없어. 목청이 없어. 경허른 이제 나무 하나 심어가꼬 '이여싸 이여

씨' 산에도 가민 막 해노민 여저덜 노래 보겏다고, 관광왔던 사름이 다 덤쳐, 나 노래 보겏다고. 나가 막 수건 머리에 들르꼭 허며는 목소리가 없으니 다른 노래는 못허잖아. 그러며는 '에이, 이놈의 것, 나 뱃노래나 헐다.' 작대기 하나 심고는 막 해노민, 관광 온 사름덜 그거 구경온다고 막 난리가 낫어.

(조): 한 번 해봅써, 관광을 때 헐 거 헐 번 해봅써.

(제): 그거 이거지.

(조): 그, 오돌뜰기 알아지쿠과.

(제): 오돌뜰긴 몰라.

(조): 그럼 이런 노래, 자장가? 왕이자랑.

(제): 왕이자랑이사 얘기 제웁는 노래.

(조): 헐 번 해봅써. 왕이 자랑 어떻 해신디.

(제): 자랑 자랑	왕이나 자랑
우리 얘기	잘도 잔다
우리 얘기	자는 읍에
소리 크게	허질 말라
이여 자라	
자랑 자랑	왕이 자랑

(제): 거 무신 노랜지 나도 모르지. 얘기 키울 때. 이젠 잊에부렁 잘 못하겠다.

(조): 예, 그거 마씀.

(제): 어, 얘기 키울 때 '자랑자랑 왕이자랑.', 뒤 '코가 커서 하꾸라이⁸⁷⁾, 눈이 커서 도독눔 잘 잡겏다.' 내가 그런 노래 잘 해봤는디.

87) はく-らい(舶來) 외래.

(조): 혼 번 해봅써. 눈이 커서 도둑놈 잘 잡겠다. 혼 번 해봅써:

(제): 우리 애기 코가 커서
 하꾸라이 코다 하
 눈이 커서 도둑놈 잘 잡겠다
 귀가 커서 소리 잘 듣겠다
 왕이 자랑
 자랑 자랑 왕이 자랑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제): 그거지 뭐 애기노래도 뭐 다른 건 안헤여.

(조): 검질 메는 노래 알아지쿠과.

(제): 검질 메는 노래도 몰라.

(조): 밭 불리는 노래?

(제): 밭 불리는 노래. “어어어어어 어얼러러러러러”허는 거지, 뭐 밭 불리는 노래, 무신 노래 헐꺼라.

(조): 그건 혼 번 해봅써.

(제): 그건 나 해보진 안했지. 듣기만 했지.

(조): 들어 본 거, 혼 번 해봅써.

(제): 어얼 어러러러러러러러러
 어얼러러러러러러러러러.

그 거 듣기만 허지, 몰 테우리덜 오라서 밭 불리는 거. 우리 또 고향은 육실허게 밭을 불리지게. 그거 줍써 빼여가꼬, “와와와와.” 허고. 몰들도 말도 잘 들어.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허른 몰들이 다 머리 숙여가꼬, 그 주인 앞디레 와. 그래가꼬, 횃바람을 쐬악 불민 또 몰이 출 먹으레 다 가.

(조): 예.

(제): 밧 불리는 노래도 그래 들어 봤지. 다른 거는 나 안 들어 봤지 뭐.

(조): 비 올 때 부르는 노래?

(제): 영, 비올 때.

(조): 비야 비야.

(제): 그런 거 몰라.

(조): 어린 아이, 머리 뽀뽀 깎은 중머리 헛 아이 놀리는 노래 중중?

(제):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뭐 나 제주도서 오래 살지도 안허곡 말허단 보난 동네 배깃떨 나가야 배웁지 뭐. 이제난 해도 우리 동생덜이 제주도 잊지마는 전화도 혼 통 안 해보고. 우리 어머니 난 동생 아니라 고, 지네가 펜 갈리는디 나도 펜 갈린다고 안 가지마는.

(조): 거제도서 만나신 영감님은 여기 육지 사람이파?

(제): 육지 사람.

(조): 육지 어디?

(제): 거제도 그저 거 버드네⁸⁸⁾라고. 김대통령, 김영삼이 멘에 거깃 사람이여.

(조): 아.

(제): 아이고, 젊은 때 가니, 가만이 살라고 해야지. 그자 남의 말만 들으라 남의 말만 들으라 허니까. 뭐 아덜이라고 허나 나서 엇고, 도망갈려고 허니까. 아덜도 못나고, 이꺼지 강안도꺼지 붙어온 걸 어떻게 헐 거라.

(조): 해녀노래를 한 곡지만 더 해줍써.

(제): 영, 네나 그거지 뭐.

88) 慶尙南道 巨濟市 長木面 柳湖里(上柳·下柳마을)의 옛지명으로 ‘버드레’, ‘버드네’라고 한다. 참고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선영은 장목면 大鷄마을이다.

(조): 혼 번 더 해봅써.

(제): 그거 무시거 자꾸 불령 뒤 헐라고.

(조): 말이 가사가 몰르는 말이 이시니까.

(제): 불려 봐야 그 노래, 불려봐야 그 노래. 무례 가민 안 불려난 노래도
자꾸 불려지는데, 집의나 앓이니까 또 안 나오네. 하하하하하.

(조): 안 불렀던 노래 영 촌촌이 생각허멍 불려봅써.

(제): 안 불렀던 노랜 다 그거지 뭐. 제주도서 그거 저.

10.

총각⁸⁹⁾허라⁹⁰⁾ 섭영 가자

건지⁹¹⁾허라 하 울산 가자

이여사나 하 이여싸 하

11.

가파도로 회영⁹²⁾ 가자

가파도는 어디메 잇나

이여싸 하 이여싸나 하

12.

우리나 부모 날 날 적엔⁹³⁾

무슨 날에 날도나 나서

해도 달도 어신 날에

89) 해녀들이 예전에 무자맥질하면서 작업하기에 편리하도록 머리털을 비녀없이 머리 위에 쪽지고 이명거리라는 끈으로 이마에서 뒷머리로 넘겨 묶는 머리 모습의 하나.

90) 하라. 여기서는 '쪽지라'의 뜻.

91) 땡은 머리.

92) 헤엄쳐서.

93) 나를 낳을 적엔.

나를 낳나 이여사나 하

13.

청춘에	할 일인들
요다지	없어 놓고
해녀 종사	웬말이더냐 하
이여싸 하	이여싸나 하

14.

놈의 첩광 ⁹⁴⁾	소남기 뱃름은 ⁹⁵⁾
소린나도	살을매 엇고 ⁹⁶⁾
지서명광 ⁹⁷⁾	오름 ⁹⁸⁾ 의 들은
등글다등	살을매 나네
이여싸 하	

15.

산천초목	다 늙어져도
요 내 허리	늙을 줄은
어느 누가	알았덴 말고
이여도싸 하	이여싸 하

16.

사랑해도	아니 온 님이
병 중허댕	오랜 말가

94) 남의 쫓과

95) 소나무 바람은

96) 살 도리가 없고

97) 지어미하고 賢淑하게 집안을 잘 다스리는 本妻와.

98) 漢拏山을 主峰으로 하여 섬 곳곳에 솟아 있는 寄生火山(側火山).

나무도 늙엉	고목이 뉘면
오던 새도	뉘돌아가고
나도 늙엉	고목 뉘면
오던 님도	뉘돌아간다 하
이여싸 하	이여도사나 헛

(제): 것도 안 허다가 허니까, 안 나오네. 하하하하하.

(조): 처음에 예. 총각차라 건지허라. 총각이 뉘파, 총각?

(제): 총각은 제주도서는 이 으흐, 여긴 오니까 머슴아덜 보고 총각이렌 허는데, 제주도선 처녀 보고 총각이라고, 이 머리 안 올리는 여저 보고 총각이라 해. 요 흐썰 말만 해가도 '총각년이 그만 주둥일 박아블라.' 저저 처녀 보고 총각이라고 해, 제주도서는.

(조): 아아, 총각하라, 건지하라는?

(제): 총각하라는 머리 하라고, 머리 이렇게 뉘이잖아.

(조): 머리 뉘는 거.

(제): 어영, 건지는 이렇게 머리 건지허잖아. 건지는 이렇게 왕ㄱ찌덜 안 해 그계 건지라.

(조): 아아, 지서명과는?

(제): 지서명광 오름의 둘은 이제 내가 큰각시 본각시는 등들다도, 이제 산엿 들허고 이제 큰각시는 등들다도 이제 살을매 나도, 남으 찻든 애허고 소나무 바람은 소린 나도 살을매 엷다고.

(조): 아아, 지서명과는 본각시구나.

(제): 어영, 본각시광 오름엿 둘은 살을매 난다. 등굴다동 살을매 나곡, 이제 놈의 찻광 소낭기 브름은 얼마나 나쁜 사름이 놈의 찻허곡 소낭 허고 비교할거라. 그저 소린 나도 살을매 엷다고 허는 거야.

(조): 소나무 바람?

(제): 어영, 소나무 바람.

(조): 그거 흔 번만 해봅써, 지서명광?

(제): ‘지서명광 오름엿 돌은 등글다동 살을매 나고 늬의 첩광 소낭기 브름, 소린나도 살을매 엿다.’ 이저지 뭐.

(조): 이거 할머니가 쭈욱 허니까, 안 했던 걸 쭈욱 해주시니까. 하하하. 이거 예, 지금 할머니들이 제 생각으로 해선 이십 년, 이십 년도 못가 가지고 이 노래들이 딱 사라지게 돼지 안 해수파. 게난 그 전에.

(제): 그러니까, 그 모녀 온 사름덜도 그러더라고, “이거 앞으로 자주 영행 놔두어야지 안 행 놔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고 또 해녀덜 어디 모집이 있어서 울산인가 어디서 해녀덜 훈련 받으레 잣다왔다 같애.

(조): 아아,

(제): 어디 뭐 해녀 단체도 잇다는 거 같애.

(조): 저 어디 충무, 통영, 거제, 삼천포에는 해녀 나잠협회가 조직됐연 이수다.

(제): 글썸, 어디 조직돼어 잇다고. 여기 해녀덜이 일 년에 한 사름씩 가는 거 같애. 경헌디 나는 나가 해녀회장 허단 딱 끊어 불고 보지도 안 허고.

(조): 해녀회장을 멧 년 정도 해수파.

(제): 해녀회장은 뭐 십 년 했는가. 십 년 해도 그 때는 어촌계비 받으렘 현 것도 엿고, 돈 내라 허는 것도 엿고, 여기는 그자 지 따먹기라. 아침에 들어가민 저녁까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뭐 또 하루 두 번 그 고무옷 안 입은 때 하루 두 번 세 번 들어가 불 쪼아가꼬 들어가도 누가 말헐 사름이 엿이니까, 뭐 다 뻐

사름덜 배 작업해서 무신 땡태 잡아 먹고, 무신 침 앵미리, 도루목이 잡아 먹을라지. 해녀덜 메역허는 거 관섭도 안 허고, 조합에서 어찌 허른 나오라가꼬, 사름 애 먹이는 거더라고 그 때 시절에는. 조합에서 뭐 할라고 그랬는지 몰라.

(조): 여기 그러면 해녀노래 부르는 게 제주도 북촌허고, 거제도 거기서 많이 불렀고, 여기서는 안 불러 봐수파?

(제): 여기서는 안 불러 봤지. 여기선 불를 일도 었고.

(조): 아니 그냥.

(제): 아니, 영 히영갈 때 혼자서.

(조): 히여갈 때 불러 봅써.

(제): 네나 그 노래라.

(조): 그래도 여기서 불렀던 게 조금 다를 거 아니우파?

(제): 아니, 그거 그거야. 여기서 그자 올로 빠지면 절로 둘러오고, 또 절로 강 빠지른 이렇게 둘러올 때도 있고. 그 전엔 여기 피조개가 많이 나. 피조개, 대합 많이 나르느, 저 배 땡기는 디도 문딱 히여도 바다 지픈 진 몰랏주. 나는 ‘바다도 지퍼.’ 이래 낫다고 본래.

(조): 거 상군혈 때 멧 메다 들어 가수파. 멧 질.

(제): 멧 질인지도 뭐도 몰르고, 오라서 메역을 해서 나오다가 그 옛날 이북 할아버지들 수경으로 입에 물고 메역허는 장대 심은 할아버지 보고, “여기 멧 질이나 들어가요.” 그런께 “고장백이 아흠 발 들어가요.” 고장백이라는 건 이제 들어가문 그만 이제 아흠 발이지. 나오고 들어가문 열 으둑 발, 이제 남저덜 발로 열으둑 발을 들어갓다 나왔다 허는 거지. 그래도 ‘바다가 뭐 수심도 깊어.’ 젊은 땐 그랬다고 바다는 수심 지픈 줄도 몰르고, 어디라도 갈 꺼 같애, 나 생각으로는. 그랬는디도 그렇게 힘들어 벌어 논 돈이 하나도 엇긴 어서.

(조): 거제도 예. 할머니가 고향 생각 나면서, 아니든 그 신랑 생각 나면서, 애기 생각하면서, 이런 거 생각하면서 불렀던 노래도 이실거 아니 우짜. 집 생각 나가지고.

(제): 네나 이겨여. 이렇게 그냥.

(조): 거 해봅써.

(제): 거 그렇지 뭐.

(조): 흔 곡지만 더 해줍써.

(제): 자꾸 허라고. 하하하.

(조): 하하하하하.

(제): 17.

이여싸나	이여도싸나 하	이여사 하
요 금전을	벌어다	
어느 부모	살리라고	여기 와서
일천 고생	다 허는 건고	

18.

어장 칠릴	동동 팔릴
언제나 나면	돌아와서 허
우리 형제	만나레 갈까 하
이여싸 하	이여도싸 하

(제): 그거지 뭐 고향 갈라고 고향 생각나든 그자 집의 앉아서 또 밤의도 요샌 누엇다가 심심허든 이 노래 불러져, 혼자서. 그러지마는 뭐 이젠 고향 가기도 뜰리고, 조카도 망해서 어디 뭐 인천인가? 어디 전라도 가서 극장표 폰다 헤여. 각시는 어디 도망 가 불고. 또 우리 조카 아덜이 서울서 노래를 그렇게 잘해가꼬, 어디 가수로 나올라 하니, 돈

있어야 나와져. 그래서 또 각시가 오라서 하도 사정해서 텔레비에라도 혼 번 나와보겠다고 돈을 천오백 쫓더마는 그걸 가지고 신랑 미천도망가 버린 모양이라, 나 돈 가지고. 그래가꼬 조카도 도다도다 버쳐가꼬 이젠 힘이 빠졌어.

(조): 그 난바리엔 허지 안힘네까. 난바린 여기 어수짜?

(제): 난바르?

(조): 예, 난바르.

(제): 난바르엔 허는 건 그 딴 동네 가는 걸 난바르엔 헐다 허지.

(조): 배에서만 물질 계속 허는 거, 배에서만?

(제): 어영, 배에서 허는 건 난바르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 시몬 댕 마을에서 와서 뭘 따달라 허잖아.

(조): 예.

(제): 그 가는 걸 난바르 간다고 그래, 응.

(조): 경허고 그 언제 들어보니까, '군대환은 왓다갓다.' 그런 노래도 잊지 아니허우짜. 군대환, 옛날에 일본배.

(제): 어영, 허허허허허. 군대환은 우리 커울 때 제주도 왓다갓다 헐어.

(조): 경허난 노래에도 보난 '군대환은 왓다갓다, 보인다.' 그런 노래도 잊지 아니허여 마썸.

(제): 뭐 '연락선은 집을 삼고, 군대환은 집을 삼고, 이제 저 어디고 오사까, 시모노세끼 그런디 간다.'고 노래는 들었나도, 거 나 몰라.

(조): 한 번 이는 대로만 해봅써.

(제): 못 허여 그거는 뭐.

(조): 할머니가 가본 디가 부산에 조금 잇다가, 거제도 잇다가, 주문진 잇다가, 여기 세 군데만 잇었구나. 다른 덴 안 가나수짜?

(제): 주문진은 오라서 해년 줄도 몰르고, 배 임제 각시라고, 그자 배만

부리다가 오라부니 몰르고, 여기 오라서 밥을 굶게 돼니까, 뭐 물에 가며는 뭐 돈으로만 베었지. 무슨 이녀 고생하는 건 모르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동네 사름덜이 그랬어, “아이고”, 우리 영감이 송가거든 “송씨네 할머니, 쇠뿔은 달아져도 송씨네 할머니 빼는 안 달아질거다.” 그랬는다. 이렇게 이젠 일어서도 못해가 저번에 딸이 오랐는데, 손님을 데리고 왔는데, 일어서질 못해가꼬 “아이고, 밥 식당에 가 사 먹고 가라.”고 했는다. 무신 병원이고, 여기 병원에 두 번 갔다 오니까. 일어나지고, 이렇게 다리도 안 아파. 널 또 갈 겨여.

(조): 아까 할머니 불러 주었던 노래 중에 ‘금강산’ 할머니가 지었다는 노래. 그걸 혼 번만 더 해줍써. 가사를 잊어버려 가지고.

(제): 여기서[녹음기] 나온다?

(조): 아니, 그거 말을 잘 모르니까 혼 번만 더 해줍써, 금강산 뭐 허는 거.

(제): 19.

강안도	금강산이
금인 줄만	알았더니
나무나 돌곳	내 눈물이야 하
안동ㄱ뜰	요 내몸이
철대ㄱ찌	다 몰라가고
비옥ㄱ뜰	요 내나 풀이
남대 육대	다 몰라간다 하

20.

아침에는	성현 몸이
저녁에는	벙은 드난
불르는 건	어머니로다
쫓는 것은	냉수로구나 하
이여싸 하	어기여싸나 하

쳐라쳐라 하	이여도쳐라 하
이여싸나 하	이여도싸나 하

21.

어서나 지고	집으로 가서
우는 애기	젓을 주고
병든 낭군	밥을 주자
이여싸 하	이여도싸

(제): 해녀노래는 그자 팔자 혼탄 해영, 그자 갖다가 붙이면 다 되는 거야. 다 붙이는 거야. 다른 건 없어.

(조): 예.

(제): 다른 거 뭐 유행가처럼 이레 붙이고 저레 붙이는 게 아니고, 그자 팔저 혼탄을 허든, 물에도 가든, 그자 설룬 노래만 나오곡.

(조): 설룬 노래 하나만 더 해봅써.

(제): 이젠 다 나와서, 어.

(조): 설룬 노래 할머니가 지은 건 어수짜.

(제): 그자, 그거 허다가 말아. 경헌디 또 저저 ‘물로 뱅뱅 돌아진 섬의 점심 굶영 무례질 해영’ 헌 것도 이제 테레비에나 나오든 해녀들 육해, 그렇게 제주사를 판명 내암젠.

(조): 으응, 그계 아난디.

(제): 경허난 불르지 말라 그래. 그래도 난 심심허민 불리.

(조): 오늘이 2001년 12월 23일이우다.

(제): 그거 다 나와, 허허허허허. 다 잘행 뇌뒤, 나 또 오닐 죽을런지 널 죽을런지 모르잖아.

(조): 나중에 예, 저가 요 쪽에 일 년에 한 번씩이라도 올 때에 할머니덕

에 들리쿠다.

(제): 그 때까지 경 몸이 건강해영 살아지카.

(조): 게난, 이제 노래를 지금 막 해주셔야 되는데.

(제): 허허, 노래가 무신 노래라 그거주. 그 해녀노래 무시거.

(조): 해녀노래가 경허른 제주도서 미역허레 갈 때 불렀고. 여기 이사 와
가지고 거제도나 이런 데서 노 저으면서 불렀고?

(제): 어, 노 젓일 때 그거 불르고.

(조): 제주도에서보다 육지에서 더 많이 불러시쿠다 예.

(제): 더 많이 불렀주마는 불를 시간도 없지게. 불를 시간이 없지. 그자
물에 들영 빨리 허영 갔다가 빨리 나와가꼬 빨리 가야된다고 허는 생
각만 허지, 노래 그자 계속 윈 불르멍 빨리 가며는, 그 목적지에 가
른, 물건 딸 생각만 허지, 무신 다른 생각해. 목적지 가른 물질해영,
그거만 헐 생각만 허지 뭐.

(조): 오늘 녹음 많이 해서 고맙습니다.

(제): 고맙긴, 뭐 고향 사름 만나그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허긴 허고마
는 잘 나올는지 모르겠어. 오래오래 간직했다가 그 옛날 할머니 노래
그렇게 불러주더라 험거나 생각해여. 하하하.

(조): 예, 고맙습니다. 하하. 건강하시고 예. 정정허십써.

[생애력과 사설 중 1번 자료의 악보]

제보자: 이기순 / 채록자: 이성훈 / 채보자: 송윤수

이 여 사 나 - - - - 이 여 도 사 나
이 여 싸 아 - - - - 이 여 싸 아 하
요 네 를 저 고 - - - - 어 디 를 가 나 - - - -
진 도 바 다 - 한 골 로 가 자 하
하 루 중 일 - - - - 별 어 봐 여 허

[생애력과 사설 중 2번 자료의 악보]

제보자: 이기순 / 채록자: 이성훈 / 채보자: 송윤수

해 가 지 고 - - - - 저 문 날 에 - - - -
골 록 마 다 - - - - 연 기 가 나 고 오
하 루 중 일 - - - - 애 췌 으 나 하



국문 초록

필자가 2001년 12월 23일 강원도 속초시에서 채록한 제주도 출신 해녀인 이기순(李基順)의 생애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보자 이기순은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리에서 1924년 4월 11일에 태어났다. 40년간 부장을 했던 제보자의 아버지가 바깥 물질을 못나가게 해서 북촌리에서만 살았는데, 미역만 채취했다고 한다. 당시 북촌리에는 테우와 거룻배를 포함해서 한 집에 두세 척씩은 다 있었다고 한다. 15살 무렵 5월경에 동갑나기 4~5명과 '똥싼집이'라는 바위로 물질을 나갔다가 상어를 만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미역 許採가 있는 날은 해녀배를 일렬로 정렬시키고 순경이 총을 쏘서 출발 신호를 알렸다고 한다. 이웃에 사는 할머니는 아이를 낳은 지 3일만에 미역을 채취하러 물질 나갔다고도 한다.

남편이 죽고, 9살 난 딸도 교통사고로 죽자, 반쯤은 미쳐서 제주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여객선을 타고 27살에 초용으로 부산에 왔다가 거제도에서 3년을 살았다. 거제도에서는 주로 미역을 채취했는데, 바다 주인인 선주와 제보자는 6 대 4의 비율로 수익을 나눴다고 한다. 이 때 버드네[거제시 장목면 유희리]가 고향인 남편을 만나 명태잡이 하러 주문진으로 이주했는데 파도에 배를 3척이나 잃고 많은 빚을 졌다.

32세 무렵에 세 살배기 딸을 데리고 속초로 이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별명이 '머구리 상군'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대상군이었다. 이주할 당시의 속초는 10리에 집이 한 채 정도 있었고, 부월리와 영금정 해녀는 50명 정도였는데 해녀회장을 10년 정도 했다. 주로 미역만 채취하다가 성계, 전복, 해삼도 채취했는데, 한 달에 2만원을 어촌계비로 내고 나머지는 모두 제보자의 수익이었다고 한다. 가끔씩 난바르를 갔는데 1~2만원 정도 일당을 받았다고 한다. 속초 원주민들은 해녀들의 두렁박을 부수고 심지어

해녀를 거지로 취급했다고 한다. 하지만 제주 출신 해녀의 아들인 마라톤 선수 황영조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로는 제주 출신 해녀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속초로 이주해서 동명동 영금정 부근에 있는 집을 14만 원에 사서 살았는데, 딸이 중학교 1학년 다닐 때 파도에 유실되자 다시 6만 5천원을 주고 산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개조하여 살았다. 그러다가 집이 좁아서 36만원을 주고 40평짜리 집으로 이사갔는데 도시계획에 묶여 현재 거주하는 영금정 아파트를 보상받았다고 한다.

橈는 제주도와 거제도에서만 저어 봤는데, 노는 3개나 5개가 있는 배였다고 한다. 노가 5개인 배에는 해녀들이 30명 정도 탔다고 한다. <노 젓는 노래>는 제주도 북촌리에서 처음 배웠고, 주로 경남 거제도에서 노를 저어 뱃물질 나갈 때 불렀는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많이 불렀다고 한다. 거제도에서 뱃물질 나갈 때, 교통사고로 죽은 딸자식을 생각하는 사설[8-9번 자료]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니 해녀들이 모두 울었다고 한다.

강원도는 제주도나 전라도처럼 물때가 없기 때문에 아무 때나 물질나가고 쉬는 날이 없다고 한다. 또한 탄 배의 노를 저어서 가는 '뱃물질'은 안하고, 헤엄쳐서 가는 '꺾물질'만 한다고 한다.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물질 나갈 때 <노 젓는 노래>를 부르는 일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혼자서 헤엄치고 물질 나갈 때는 <노 젓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 요즘은 밤에 누워 있다가 고향 생각이 나면 부를 때도 있다고 한다.

현재 속초시 동명동 영금정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 해녀는 10명 내외라고 한다.

주제어 : 해녀, 생애력, 민요, 노 젓는 노래